

# 포항의 안전지킴이 철강업재해예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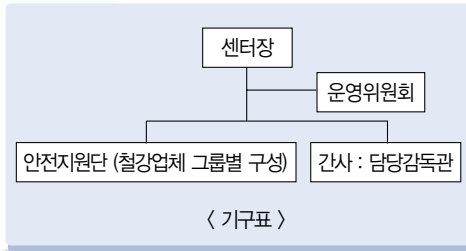
## 1. 설립 배경\_ 포항지청 관내에는 포스코 및

관련 회사, 철강공단 등 철강 업종의 사업장수가 6.1%, 근로자수 1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해발생 사업장 수는 20.8%, 재해자수는 24.5%로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 자체 내에 철강업종 재해율을 15% 감소시키기 위한 “철강업종 재해예방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재해예방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 2. 목표\_ 포항지청 내 철강업종 재해율은 '05

년 1.18% 대비 15% 낮은 1.00%로 감소시키고, 재해자수 또한 '05년 427명 대비 15% 감소시킨 363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3. 구조



### 가. 운영위원회

포항지청 허성태 산업안전과장을 센터장으로 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포항철강공단산

업단지관리공단 4개 유관기관 실무자와 포스코, 세아제강, INIST, 동국제강, 포철산기 실무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5개 기업은 팀장회사가 되어 협력사 및 50인 이상 기업에 재해예방 활동에 지원 및 상담을 수행한다.

### 나. 안전감시단

철강업체 1,100여개 중 경동산업 등 지역별 58개사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계자 총 84명으로 구성되어 팀장회사에서 수행하는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고, 매월 팀장회사가 주체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점검사례 등 안전활동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사항은 포철산기 이익우 과장(안전지원단장)에게 보고되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지역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 그 중 포항이 그렇다. 포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업이 강세이나 이 분야에서 재해를 또한 높다.

그러나 포항에서는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이 주관하고,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율을 낮춰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여기에 허성태 산업안전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진다. 또한 여기서 발생된 사항중 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협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지역 내 안전 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 4. 철강업종 재해예방센터 운영\_ (1) 철


강업종 규모별, 설비별, 작업종류별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취약요인에 대응하는 재해예방 감소 전략을 강구하고 차별화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① 대상사업장 중 89.6%를 점유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총 1,017개소는 작업환경개선의지가 미흡하고 생산성 향상 위주의 경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 현재는 지원의 손길이 미진하나 점차 시설개선 자금지원 및 안전의식 고취 교육 지원 등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② 개별 사업장 지원보다 모기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파트너십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 ③ 동종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산업재해 다발 작업종류, 설비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한다.
- (2) 근로복지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기업,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하여 사업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 (3)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과 의식 고취를 위한 케치프레이즈 공모,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철강업종으로 변화시킨다.
- (4) 관 주도가 아니고 팀장회사가 주관이 되어 자율적인 법적 사항을 비롯한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한다.

#### 5. 맺음말\_ 금년 3월에 운영된 철강업종 재해

예방센터는 시작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센터에 가입된 기업만 1,135개소이고 그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관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적인 안전에 기업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총 6차에 걸쳐 철강업종 안전실무 관계자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만



응이 좋다. 국내 최초로 특정 분야업종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하나가 된 것은 포항지청 내 사업장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허성태 안전과장은 아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나 이를 확대 보완함으로써 명실 공히 성공적인 지역 내 업종별 재해예방활동 사례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사례가 여수 화학단지 등 타 지역의 특정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최종덕 기자)